

말라위 선교사 최지원 학우

저는 유년 시절부터 약 18년 동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. 초등학생 시절부터 피아노와 첼로 연주를 해 왔고, 성인이 되면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했습니다.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잦은 병치레를 해야 했고, 비밀리에 사역을 해야 했던 중국 선교의 특성상 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.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며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된 저는 지난 2012년 부모님과 함께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제 2의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북서진선교회(North West Mission)소속 선교사로 현지 목회자들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찬양과 음악을 가르치는 등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.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음감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고,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제가 어린시절 배웠던 음악을 기초로 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, 저의 마음 한 켠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 기도가 언제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.

2018년 1월, 하나님의 은혜로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에 입학하여 첫 학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.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공부에 아직은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니지만,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말라위의 학생들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 기쁨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.